

## 국내·외 의료 환경 내 가족 참여 음악 중재 연구 고찰

최다인\*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에서 실시된 의료 환경 내 가족 보호자 대상 음악 중재 연구를 고찰하고 가족 보호자의 참여 유형에 따라 중재 목표, 음악 중재 내용 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국내외 학술지 전자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음악 중재와 가족 보호자, 호스피스, 중환자, 소아병동, 재활 등의 세부 의료 환경 등을 검색어로 하여 2016년까지 게재된 논문을 검색하였다. 검색 과정을 통해 국내 연구 5편, 국외 연구 38편의 총 43편을 최종 선정, 분석하였다. 연구 분석 결과, 가족 보호자만 중재에 참여한 논문이 5편, 환자와 가족이 동반 참여한 논문이 38편이었다. 국외에서는 다양화된 형태의 가족 참여 연구가 1980년대 후반부터 시행된 반면, 국내에서는 가족 보호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중재 연구는 미비하고 환자와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의 연구만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단독 참여 연구는 주로 완화의료 병동에서 진행되었으며, 환자의 배우자가 참여하는 비율이 높았다. 가족 동반 참여 연구는 신생아 중환자실, 암병동 등에서 실시되는 비중이 높고, 부모의 참여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가족 단독 참여 연구에서는 수동적인 음악 중재가 시행된 경우가 많은 반면, 환자와 보호자가 동반 참여한 연구에서는 적극적인 음악 중재가 사용되는 비중이 보다 많았다. 본 연구 결과는 의료 환경 내에서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는 가족 중심 돌봄의 개념이 국내 의료 환경 내 음악 중재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시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핵심어 : 가족 보호자, 음악 중재, 의료 환경, 가족 중심 돌봄, 문헌 고찰

\* 이화음악재활센터 연구원, 음악중재전문가(KCMT) (shinsan6@naver.com)

## I. 서론

최근 의료 환경 내에서는 환자의 생존을 위한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환자의 돌봄에 대한 개념 역시 변화해오고 있다(Lenburg, Klein, Abdur-Rahman, Spencer, & Boyer, 2009). 그 중 가족중심(family-centered) 돌봄은 환자중심 돌봄이 확대된 개념으로 의료 환경 내 치료에서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왔다(Bamm & Rosenbaum, 2008). 이전의 의료 서비스는 전문 의료진에 의해 결정된 처치를 환자가 일방적으로 제공받는 방식이었으나(Bruns & Klein, 2005), 가족 중심 돌봄의 개념이 적용되면서 전문 의료진과 가족이 함께 치료에 필요한 의사 결정 과정에 협력하는 형태로 변화되어 치료 과정에서 가족의 주체적인 참여자 역할수행이 이루어지고 있다(Coyne, O'Neill, Murphy, Costello, & O'shea, 2011). 이러한 가족 보호자의 역할 참여는 단순 참여의 수준을 벗어나 치료 과정 중 가족의 지지적 역할이 환자의 치료 결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임상적으로 보고되고 있다(Mitchell, Chaboyer, Burmeister, & Foster, 2009). 이에 따라 가족 보호자 역시 다양한 형태로 환자의 치료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고 의료 서비스의 범위 역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Fields, 2014; Lor, Crooks, & Tluczek, 2016).

의료 환경 내 치료 중재에서 가족의 참여는 치료 과정 및 효과성 측면에서 볼 때 여러 가능성을 보여준다. 소아 혹은 돌봄의 필요가 중한 환자의 경우 가족 참여가 치료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가족에게 일관된 치료 방향과 계획을 안내하여 환자 돌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간병 과정에서 가족들이 경험하는 피로 또는 소진에 대한 대처 및 관리차원의 중재가 환자 돌봄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Hong, Tae, & Noh, 2012).

반면 가족 참여에 대한 의료진의 부가적인 노력과 협력, 그리고 치료 서비스 과정에서의 의사소통을 위한 교육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어(Im & Oh, 2016), 가족이 돌봄의 주체로 포함되는 것에는 많은 노력과 논의가 필요하다. 실제 가족 참여에 대한 의료 환경 내 연구들을 살펴보면, 환자 가족의 불안 및 우울 증상을 완화하고 의사 결정을 돕기 위한 교육적 정보를 제공하거나(Lee, Oh, Suh, & Seo, 2016), 심리·정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면담을 시행하는데(Curtis et al., 2016), 가족의 필요를 직접 다루지 못하거나 단순 정보 전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효과적인 가족참여 및 중재 범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들이 강조되고 있다.

환자 가족의 신체적, 심리정서적 다양한 필요에 맞춰 제공이 가능한 중재 서비스 중 음악 치료는 음악이라는 치료매체의 특성을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활용되어 오고 있다(Shultis & Gallagher, 2016). 일반적으로 음악 매체는 의료 환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신체, 심리, 사회, 정서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필요를 위한 치료적 개입에 적용될 수 있고(Burns & Meadows, 2015), 참여 수준의 범위가 비교적 넓어 의료 환경 내 환자와 가족 보호자의 필요에 따라 다

양하게 중재를 구성하는 게 가능하다. 특히 환자와 가족 간 관계적 특성 및 연령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활용될 수 있는데, 이는 환자의 연령이 낮거나, 질병의 심각도가 높은 등 세부의료환경적 특성을 바탕으로 융통적 접근이 가능하다. 음악치료 중재는 다학제팀의 일부로써 의료 환경에서 발생하는 신체 및 심리·사회적 치료 및 돌봄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Jung, 2015), 환자가 가족 구성원과 음악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치료 효과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Melnyk et al., 2004; O'Callaghan, Hudson, McDermott, & Zalberg, 2011).

의료 환경에서 실시된 음악치료 관련 체계적 고찰 연구들 중 대상군에 환자의 가족 보호자가 함께 포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그 참여 수준이 소아 환자에 대한 중재효과 측정 시 가족 보호자들의 치료만족도를 포함한 수준에서부터(Glasscoe & Quittner, 2008; Goldbeck, Fidika, Herle, & Quittner, 2014), 신생아와 같이 돌봄의 수준이 단순히 의료적인 처치 이외에 양육이 병행되어야 하는 경우 부모에 대한 직접적인 심리적 중재가 병행되는 수준(Bieleninik, Ghetti, & Gold, 2016)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의료 환경 내 치료 서비스로서의 음악치료 영역에서도 환자의 가족 보호자 대상 중재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고려할 때, 이러한 관심이 실제 임상 연구 내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동향과 음악 중재의 유형 및 수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에서 실시된 의료 환경 내 가족 보호자 대상 음악 중재 연구를 고찰하고 참여한 가족 보호자 유형에 따라 목표 영역, 음악 활동 유형 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실제 연구 제목이나 주제 범위에는 가족의 참여 여부나 중재 개입 수준이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Arnon et al, 2006; Chaput-McGovern & Silverman, 2012; Gilad & Arnon, 2010; Grasso, Button, Allison, & Sawyer, 2000), 본 연구에서는 가족중심 음악중재를 핵심단어로 선택하여 기존 음악중재와의 차이점과 세부 특성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선행 연구를 통해 특정 의료 환경 내에서 어떠한 임상 연구가 진행되어왔는지 고찰한 경우가 있으나(Tung, 2014), 음악 중재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은 미비하여 본 연구에서는 의료 환경 내 가족 보호자의 음악 중재 연구의 참여 및 개입 유형에 따른 변인 및 음악사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들은 국내 음악 치료 연구 및 임상 현장에서 가족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재를 구성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적절한 판단 근거 및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Ⅱ. 연구 방법

### 1. 자료 검색 과정

국내·외 의료 환경 내 환자의 가족 보호자를 포함하는 음악 중재 연구를 검색하기 위해서 전자 학술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였다. 먼저 국내 자료 수집을 위해 학술 데이터베이스 중 학술연구 정보서비스(RISS), 국회도서관, Google Scholar, 교보문고 스킨라를 활용하였다. 독립변인 관련 검색어로는 ‘음악’, ‘음악치료’, ‘음악 중재’, ‘음악 감상’, ‘악기 연주’, ‘노래’, 대상자 관련 검색어로는 ‘보호자’, ‘부양자’, ‘환자 가족’, ‘가족’, ‘가족 중심’, ‘배우자’, ‘간병인’, ‘돌봄’, ‘돌봄 소진’, ‘돌봄 부담’, ‘간병 부담’, ‘간병 소진’, 중재 환경과 관련된 검색어로는 ‘병원’, ‘환자’, ‘환아’, ‘수술’, ‘완화 의료’, ‘호스피스’, ‘암’, ‘재활’, ‘뇌졸중’, ‘뇌손상’, ‘종말기’, ‘중환자’를 조합하여 검색하였다. 검색된 연구의 참고 문헌을 추가적으로 검토 및 검색하였다. 그 중 저작자의 요청, 발행 중단 등의 사유로 원문을 볼 수 없는 경우, 활동 모음집, 임상적 보고 등 객관적 검증 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국외 연구는 데이터베이스 Cochrane library, PsycINFO, CINAHL, ERIC, PsycARTICLES, PubMed, Google Scholar를 활용하였다. 독립변인 관련 검색어로는 ‘music’, ‘music intervention’, ‘medical music therapy’, ‘music therapy’, ‘singing’, ‘playing’, ‘music listening’, 대상자 관련 검색어로는 ‘caregiver’, ‘caregivers’, ‘care burden’, ‘family’, ‘carer’, ‘spouse’, ‘family-centered’, ‘parents’, ‘mother’, ‘maternal’, 연구 환경 관련 검색어로는 ‘medical’, ‘surgical’, ‘end of life’, ‘hospice’, ‘palliative’, ‘ICU’, ‘NICU’, ‘PICU’, ‘SICU’, ‘waiting area’, ‘mechanical ventilation’, ‘cancer’, ‘hospital’, ‘rehabilitation’, ‘stroke’, ‘brain injury’, ‘premature’를 조합하여 검색하였다. 그 중 영문 자료 중 원문 열람이 가능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 후 키워드로 검색된 문헌 연구를 중심으로 누락된 연구의 여부를 확인하였다.

### 2. 연구 포함 기준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의료 환경 내 가족 참여 음악 중재 연구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초기 발행년도는 제한을 두지 않고 2016년 11월까지 발행 및 게재된 학술지 및 학위 논문을 모두 검색하였다. 학위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어 중복되는 경우 해당 학위 논문은 선정 시 배제하고 학술지 논문을 분석 과정에 포함시켰다. 대상자 관련 기준과 관련하여서는 가족이 직접적인 연구 참여자이거나 환자의 중재 과정에 가족이 참여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였다. 이때 가족의 범위는 환자의 치료 과정에 의사 결정 및 돌봄 역할을 수행하는 보호자를 포함해 주 보호자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환자와 가족 관계에 있는 대상자(즉, 환자와

혈연 및 친분으로 사회적 관계가 있는 직계 가족 및 친척 등)를 포함하였다. 연구 시행 환경은 법적 의료 기관으로 분류된 장소에서 시행된 연구로 범위를 설정하였으며, 완화 의료 분야에서 진행된 사별 가족 중재의 경우 병원이 아닌 가정 및 학교 기반 호스피스, 요양 및 보호 시설, 사설 클리닉과 같은 장소에서 시행된 연구는 분석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음악 중재의 범위는 중재 제공자의 배경과 관계없이 음악 요소의 사용이 독립 변인으로 제공된 모든 경우를 포함하였다.

### Ⅲ. 결 과

국내 연구를 검색한 결과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총 7편의 연구가 해당되었으나, 그 중 의료 환경이 아닌 사회복지시설 및 주간보호시설에서 진행된 2편의 연구를 제외하여 총 5편의 의료 환경 내에서 실시된 가족 참여 연구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국외의 데이터베이스 검색 결과 1986년부터 2016년까지 38편의 연구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국내 연구 5편 및 국외 연구 33편을 포함한 총 43개의 연구가 최종 분석 과정에 포함되었으며 선정된 연구는 <Table 1>에 제시되어 있다.

#### 1. 연구의 전반적 현황

분석에 포함된 총 43편의 연구를 연구 참여 대상자의 유형에 따라 환자 가족만 단독 참여한 연구와 환자와 함께 동반 참여하는 연구로 구분하고, 연도별 출판 현황과 연구가 실시된 세부 환경을 분석하였다(<Table 2> 참조). 환자의 가족만 단독 참여한 연구는 총 5편이었으며, 모두 국외에서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와 가족이 동반 참여한 연구는 총 38편이었고, 국내 연구가 5편, 국외 연구가 33편이었다.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가족 보호자만 참여한 연구의 경우, 2005년 이후 연구가 출판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고 2016년까지 연도별로 유사한 수의 논문이 출판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보호자가 환자와 함께 참여한 연구의 경우, 국외 연구는 1986년 이후 출판되기 시작한 반면, 국내 연구는 2005년 이후부터 출판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도별 현황을 살펴볼 때, 국내 연구(총 5편)는 최근 10여 년간 연도별로 유사한 수의 논문이 출판된 반면, 국외 연구에서는 1996-2004년에는 5편, 2005-2010년에는 11편, 2011-2016년에는 17편의 논문이 출판되는 등 출판 논문 수에 있어 현저한 증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in the Included Studies ( $N=43$ )

Category	Study	Participants			
		Setting	Age of patients	Age of caregivers	Type
Korean-written	Lee (2006)	Palliative care u.	55 yrs	25-29 yrs	F+P
	Do (2010)	Rehabilitation u.	46-60 yrs	25-58 yrs	F+P
	Kim et al. (2010)	ICU	22 mos-14 yrs	36.9 yrs	F+P
	Jang (2013)	NICU	33.1 wks <sup>a</sup>	33.3 yrs	F+P
	Park et al. (2013)	NICU	28.6 wks <sup>a</sup>	≥ 35 yrs	F+P
English-written	Slivka et al. (1986)	Cancer u.	N.R.	3-9 yrs	F+P
	Grasso et al. (2000)	Internal medicine u.	N.R.	13 yrs	F+P
	Whipple (2000)	NICU	25-36 wks <sup>a</sup>	16-39 yrs	F+P
	Krout (2003)	Palliative care u.	37-85 yrs	N.R.	F+P
	Kain et al. (2004)	Pediatric u.	5.4 yrs	N.R.	F+P
	Okamoto (2005)	Palliative care u.	1-99 yrs	N.R.	F
	Amon et al. (2006)	NICU	25-34 wks <sup>a</sup>	N.R.	F+P
	Blumenfeld et al. (2006)	NICU	23-34 wks	N.R.	F+P
	Kim (2006)	Palliative care u.	82.3 yrs	N.R.	F+P
	Lai et al. (2006)	NICU	33.8 wks <sup>a</sup>	29.2 yrs	F+P
	Johnston et al. (2007)	NICU	33.1 wks <sup>a</sup>	N.R.	F+P
	Kitawaki (2007)	Palliative care u.	29-72 yrs	N.R.	F+P
	Whitehead-Pleaux et al. (2007)	Pediatric u.	7-16 yrs	N.R.	F+P
	Wlodarczyk (2007)	Palliative care u.	26-89 yrs	N.R.	F+P
	Cevasco (2008)	NICU	32.0 wks <sup>a</sup>	27.3 yrs	F+P
	Magill et al. (2008)	Palliative care u.	40-63 yrs	N.R.	F+P
	O'Kelly (2008)	Palliative care u.	N.R.	N.R.	F
	O'Callaghan et al. (2009)	Cancer u.	25-57 yrs	18mos-18yrs	F+P
	Walworth (2009)	NICU	15.7 mos	N.R.	F+P
	Choi (2010)	Palliative care u.	N.A.	45-94 yrs	F
Lai et al. (2011)	Cancer u.	N.A.	44.9 yrs	F	

<sup>a</sup> For neonatal infants in included studies, the gestational age at birth was reported.

Notes. N.R.: not reported; N.A.: not applicable; u: unit; ICU: intensive care unit; NICU: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lt;Table 1&gt; Continued

Category	Study	Participants information			
		Setting	Mean age of patients	Mean age of caregivers	Type
English-written	Preti et al. (2011)	Pediatric u.	0-15 yrs	N.R.	F+P
	Schlez et al. (2011)	NICU	30 wks <sup>a</sup>	30.0 yrs	F+P
	Teckenberg-Jansson et al. (2011)	NICU	30.6 wks <sup>a</sup>	31.0 yrs	F+P
	Vianna et al. (2011)	NICU	30.1 wks <sup>a</sup>	12-40 yrs	F+P
	Anderson (2012)	Palliative care u.	N.R.	26-70 yrs	F+P
	Chaput-McGovern et al. (2012)	Cancer u.	59.6 yrs	65.5 yrs	F+P
	Lindenfelser et al. (2012)	Palliative care u.	0-14 yrs	N.R.	F+P
	Docherty et al. (2013)	Cancer u.	N.R.	44.5 yrs	F+P
	Hartling et al. (2013)	Pediatric u.	75.5 mos	N.R.	F+P
	Loewy et al. (2013)	NICU	29.5 wks <sup>a</sup>	N.R.	F+P
	Chorna et al. (2014)	NICU	28-32 wks <sup>a</sup>	N.R.	F+P
	Silverman (2014)	Psychiatric u.	42.2 yrs	37.2 yrs	F+P
	Dvorak (2015)	Cancer u.	53.2 yrs	53.2 yrs	F+P
	Jayamala et al. (2015)	NICU	34.2 wks	24.0 yrs	F+P
	Fancourt et al. (2016)	Cancer u.	60.8 yrs	58.2 yrs	F+P
	Sumathy et al. (2016)	ICU	N.A.	N.R.	F
	Ettenberger et al. (2017)	NICU		32.0 wks <sup>a</sup>	24.4 yrs

<sup>a</sup> For neonatal infants in included studies, the gestational age at birth was reported.

Notes. N.R.: not reported; N.A.: not applicable; u: unit; ICU: intensive care unit; NICU: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의료 환경 내 가족 보호자가 참여한 연구가 시행된 세부 환경을 살펴보았을 때, 내과병동, 소아병동, 신생아 중환자실, 암병동, 완화병동, 정신병동, 재활병동에서 관련 연구가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의 가족이 단독으로 음악 중재에 참여한 연구의 경우, 국외 연구만 포함되었고 세부 의료 환경과 관련하여 완화병동에서 3개의 연구, 암병동, 중환자실에서 각각 1개의 연구가 실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가족이 환자와 함께 음악 중재에 동반 참여한 연구의 경우, 신생아 중환자실( $n = 16$ )에서 가장 많이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완화 병동( $n = 9$ ), 암 병동( $n = 6$ ), 소아 병동( $n = 3$ )의 순서로 음악 중재 연구가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Type of Participants in the Family-Involved Music Intervention in Korean-Written and English-Written Studies Depending on the Year of Publication and the Settings (N= 43)

Year	Family only (n = 5)									Family + patient (n = 38)								
	English-written studies*									Korean-written/English-written studies								
	C	I	N	Pal	Ped	Psy	Reh	Int	Sub total	C	I	N	Pal	Ped	Psy	Reh	Int	Sub total
1986	-	-	-	-	-	-	-	-	0	0/1	-	0/1	0/1	0/1	-	-	0/1	0/5
2004	-	-	-	-	-	-	-	-	0	0/1	-	0/1	0/1	0/1	-	-	0/1	0/5
2005	-	-	-	3	-	-	-	-	3	0/1	1/0	0/6	1/4	-	-	1/0	-	3/11
2010	-	-	-	3	-	-	-	-	3	0/1	1/0	0/6	1/4	-	-	1/0	-	3/11
2011	-	-	-	3	-	-	-	-	3	0/1	1/0	0/6	1/4	-	-	1/0	-	3/11
2016	1	-	1	-	-	-	-	-	2	0/4	-	2/7	0/3	0/2	0/1	-	-	2/17
<b>Total</b>	<b>1</b>	<b>0</b>	<b>1</b>	<b>3</b>	<b>0</b>	<b>0</b>	<b>0</b>	<b>0</b>	<b>5</b>	<b>0/6</b>	<b>1/0</b>	<b>2/14</b>	<b>1/8</b>	<b>0/3</b>	<b>0/1</b>	<b>1/0</b>	<b>0/1</b>	<b>5/33</b>

Notes. “-” indicates that no study was conducted in such setting. C: cancer unit; I: intensive care unit; N: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Pal: palliative care unit; Ped: pediatric unit; Psy: psychiatric unit; Reh: rehabilitation unit; Int: internal medicine unit.

\* For the studies in which only family members involved without patients, no Korean-written studies were included.

최종 분석 과정에 선정된 연구에서, 가족 보호자와 환자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연구에 명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자녀, 배우자+자녀+부모, 기타, 미보고로 분류할 수 있었다. 환자의 직계 가족이 아닌 친척이나 형제 등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기타로 분류하였고, 환자와의 관계가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보고로 분류하였다(<Table 3> 참조).

국내에서 진행된 총 5편의 연구의 경우, 부모가 단독으로 참여한 연구가 3편(60%), 배우자와 자녀의 조합으로 참여한 연구가 1편(20%), 직계 가족과 더불어 친척 등이 함께 참여한 연구는 1편(20%)이었다. 국외에서 진행된 총 38편의 연구에서는 부모가 단독적으로 참여한 연구가 21편(55%)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직계 가족과 친척, 형제 등이 함께 참여한 연구가 8편(21%), 배우자와 자녀의 조합으로 참여한 연구가 4편(10%), 자녀가 단독으로 참여한 연구가 2편(5%), 배우자가 단독으로 참여한 연구가 1편(3%), 배우자와 자녀 및 부모의 조합으로 참여한 연구가 1편(3%), 그 외 관계가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연구가 1편(3%)인 것으로 나타났다.



&lt;Table 3&gt; Participants' Relation to the Patient in the Included Studies (N= 43)

	Korean-written, <i>n</i> (%)	English-written, <i>n</i> (%)
Parents	3 (60)	21 (55)
Children	0 (0)	2 (5)
Spouse	0 (0)	1 (3)
Others		
Spouse + children	1 (20)	4 (10)
Spouse + children + parents	0 (0)	1 (3)
Family members + friends	1 (20)	8 (21)
Not reported	0 (0)	1 (3)
<b>Total</b>	<b>5 (100)</b>	<b>38 (100)</b>

## 2. 목표 영역

다음으로는 환자의 가족만 참여한 음악 중재 연구와 환자와 환자의 가족이 동반 참여한 음악 중재 연구의 목표 영역과 종속 변인을 분석하였다. 중재 목표는 크게 심리적, 관계적, 신체적, 영적 영역으로 분류되었다. 심리적 영역을 목표로 한 연구에는 불안, 우울, 삶의 질, 스트레스, 만족도, 돌봄 소진, 애도, 자아존중감, 심리적 지지감, 기분, 회복력, 정신적 건강으로 총 12개의 종속 변인이 포함되었다. 관계적 영역을 목표로 한 경우에는 의사소통, 유대감/애착, 관계 인식의 총 3개 종속 변인이 포함되었다. 신체적 영역에 해당하는 종속 변인에는 피로, 수면의 질, 긴장이완, 생리적 지표의 4개 변인이 포함되었고, 영적 영역에서는 영적 돌봄의 종속 변인 1개가 조사되었다. 각 목표 영역별로 개별 종속 변인을 포함하고 있는 논문 수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에 제시되어 있다.

## 3. 음악 중재 기법 및 적용 목적

가족이 참여한 국내외 음악 중재 연구를 가족 참여 유형(즉, 가족 보호자 단독 참여와 환자와 가족의 동반 참여)에 따라 중재 유형과 세부 중재 기법, 적용 목적을 분석하였다. 중재 유형은 대상자가 음악 매체를 경험하는 수준에 따라 수동적, 적극적 중재로 구분하였다. 수동적 중재는 녹음 음악 또는 중재자가 직접 연주하는 라이브 음악을 감상하는 방식으로, 대상자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음악 자극을 수용적으로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음악 활동에 참여한다. 이에 비해 적극적인 중재는 대상자가 노래부르기, 악기 연주, 송라이팅 등에 참여하는 방식으

로, 대상자는 음악을 표현하는 주체로써 음악 활동에 참여한다(Kuhn, 2002). 또한 적용 목표는 심리적, 관계적, 신체적, 영적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Table 4> Goal Areas of the Included Studies

Goal area	Dependent variable	Family-only (n = 5)	Family+patient (n = 38)
		English-written*	Korean-written/ English-written
Psychological	Anxiety	2	2 / 11
	Depression	1	1 / 2
	Quality of life	2	- / 1
	Stress	1	1 / 5
	Satisfaction	1	- / 5
	Caregivers burnout	1	-
	Grief	1	- / 3
	Self-esteem	-	1 / 1
	Psychological support	-	- / 5
	Mood	-	- / 3
	Resilience	-	- / 2
	Psychological health	-	- / 1
	<b>Subtotal</b>		<b>9</b>
Relational	Communication	-	1 / 7
	Bonding	-	1 / 4
	Perception of relations	-	3 / 1
	<b>Subtotal</b>	<b>0</b>	<b>5 / 12</b>
Physical	Fatigue	1	-
	Quality of sleep	1	-
	Relaxation	-	-
	Physiological parameters	3	- / 8
	<b>Subtotal</b>	<b>5</b>	<b>0 / 8</b>
Spiritual	Spiritual care	1	- / 1
	<b>Subtotal</b>	<b>1</b>	<b>0 / 1</b>

Note. The number indicates that each study might include multiple variables.

\*For the studies in which only family members involved without patients, no Korean-written studies were included.

음악 중재 유형과 중재 기법, 적용 목표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5>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가족 보호자만 단독으로 중재에 참여한 경우, 수동적 음악 중재가 사용된 경우가 6편, 적극적 음악 중재가 사용된 경우가 11편이었다(이는 개별 연구에서 1개 이상의 목표 영역 및 중재 기법이 사용된 내용을 반영한 결과이다). 수동적 음악 중재가 사용된 연구를 분석한 결과, 라이브로 제공되는 음악을 감상한 연구는 없었으며, 녹음 음악의 감상만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 음악 중재가 사용된 경우, 즉흥연주의 형태로 악기 연주가 적용된 경우가 2편, 송라이팅 형태의 노래심리치료기법이 적용된 경우가 2편, 음악과 긴장이완 형태의 음악과 움직임이 적용된 경우가 1편이었다. 적극적 음악 중재는 기법과 상관없이 모두 심리적 목표를 위해 적용되었다.

가족 보호자와 환자가 동반 참여한 연구의 경우에는 가족 단독 참여 연구에 비해 보다 다양한 중재 기법이 활용되고, 적용 목표 또한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동적 음악 중재의 경우, 녹음 음악감상만 사용되었던 가족 단독 참여 연구와 달리 라이브 음악감상( $n=19$ )이 녹음 음악감상( $n=4$ )보다 많이 사용되었다. 녹음 음악감상이 적용된 연구에서는 심리적 영역이 목표되었고, 라이브 음악감상은 심리적, 관계적, 신체적 목표를 위해 적용되었다. 적극적 음악 중재가 활용된 연구를 분석한 결과, 노래부르기( $n=22$ )가 활용된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노래심리치료 기법( $n=15$ ), 악기 연주( $n=10$ ), 음악과 움직임( $n=1$ )의 순으로 나타났다. 악기 연주의 경우, 즉흥연주만 활용되었던 가족 단독 참여 연구와 달리, 즉흥연주( $n=3$ )보다 구조화된 악기 연주( $n=7$ )가 더 많이 활용되는 경향이 있었고, 심리적, 관계적, 영적 영역이 목표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래부르기의 경우에는 라이브 노래부르기( $n=18$ )가 가장 많이 활용되었고, 환자를 위해 가족 보호자가 직접 노래를 부른 것을 녹음한 음원의 사용과 합창이 각각 2편의 연구에서 활용되었다. 적용 목표를 살펴본 결과, 심리적, 관계적 영역이 가장 많이 목표되었고, 신체적, 영적 영역을 목표로 한 연구는 각각 1편씩이었다. 노래심리치료 기법의 경우 송라이팅( $n=12$ )이 가장 많이 활용되었고, 심리적, 관계적 영적 목표를 위해 적용되었다. 그 뒤를 이어 치료적 뮤직비디오 만들기가 2편의 연구에서 활용되었고 신체적, 관계적 목표를 위해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서전적 노래부르기는 심리적 목표를 위해 1편의 연구에서 적용되었다. 가족 보호자가 환자와 동반 참여한 연구에서 음악과 움직임이 활용된 내용을 살펴보면 1개의 연구가 조사되었는데, 음악에 맞추어 움직임을 시행하는 형태로 중재가 이루어졌고, 적용 목표는 심리적 영역이었다.

<Table 5> Type of Intervention and Music Activity Depending on the Goal Areas in the Included Studies

Type of intervention	Type of music activity	Family only				Family + patient				
		Psychological	Relational	Physical	Subtotal	Psychological	Relational	Physical	Spiritual	Subtotal
Passive	L Use of live music	-	-	-	-	12	3	4	-	19
	Use of recorded music	3	-	3	6	4	-	-	-	4
<b>Subtotal</b>		<b>3</b>	<b>0</b>	<b>3</b>	<b>6</b>	<b>16</b>	<b>3</b>	<b>4</b>	<b>-</b>	<b>23</b>
Active	P Improvisation	2	-	-	2	1	1	-	1	3
	Structured instrument playing	-	-	-	-	4	3	-	-	7
	S Live singing	-	-	-	-	8	8	-	1	18
	Use of recordings of singing	-	-	-	-	1	1	-	-	2
Choral singing		-	-	-	-	1	-	1	-	2
S-Psy	S- Song-writing	2	-	-	2	7	4	-	1	12
	Therapeutic music video	-	-	-	-	1	1	-	-	2
	Song autobiography	-	-	-	-	-	1	-	-	1
M-Mov	M- PMR	1	-	-	1	-	-	-	-	-
	Movement	-	-	-	-	1	-	-	-	1
<b>Subtotal</b>		<b>5</b>	<b>0</b>	<b>0</b>	<b>5</b>	<b>24</b>	<b>19</b>	<b>1</b>	<b>3</b>	<b>48</b>

Notes. L: listening; P: playing; S: singing; S-Psy: song psychotherapy; M-Mov: music and movement. The number indicates that each study might include multiple goal areas.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국내·외 의료 환경 내 환자 가족이 음악 중재에 참여한 연구 43편을 대상으로 가족의 참여 유형에 따른 음악 중재 연구 내용을 분석하였다. 의료 환경 내 가족이 동참한 음악 중재 연구는 참여하는 방식에 따라 가족이 독립적인 대상으로 참여하거나 환자와 동반 참여하는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참여 유형에 따라 연구 간 특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가족의 참여 유형에 따라 음악중재를 비교 분석한 결과에 대한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 환경 내 가족대상 음악중재 연구에서는 가족이 단독으로 참여한 경우보다 가족과 환자가 동반 참여한 연구가 많고, 가족이 단독으로 참여한 연구는 모두 국외에서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환경 내 음악치료 중재의 관심이 비교적 일찍 시작된 서구에서의 연구 시작 시점이나 연구대상자의 세부 의료 환경 구분 등이 국내와 큰 차이를 보였다. 가족 동반 참여 연구의 경우 환자의 연령이 낮은 신생아 대상 연구 환경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으며, 완화의료 병동과 같이 환자의 치료과정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고 가족의 돌봄 개입 수준이 비교적 높은 환경에서의 연구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세부 의료 환경 별 가족의 중재 필요성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며, 국내의 의료 환경 내 음악치료 연구가 비교적 소외되어 있는 현실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Hwang, 2015; Kim, Choi, Kim, & Kim, 2016).

분석 대상 연구가 출간된 약 20여 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국내의 경우 2005년을 기점으로 가족 보호자 대상 연구가 출판되기 시작한 반면, 국외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가족 보호자가 연구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출판된 논문 수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출판 시작 시점의 지연은 가족 돌봄에 대한 개념의 도입과 실제 임상현장에서의 실행에 다소 시간이 걸린 것으로 사료되며 가족중심 돌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최근 의료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볼 때 논문 수의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중재 연구한 참여한 가족 보호자와 환자 간 관계의 유형을 살펴본 결과 부모참여 연구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는 가족 참여 연구가 빈번히 시행되는 환경이 신생아 중환자실이나 암병동이라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흥미로운 것은 가족 보호자가 참여하는 중재에 자원봉사자나 친구, 간병인 등의 제3자의 동반 참여도 함께 이루어진 연구들도 포함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환자의 돌봄에 참여하게 되는 보호자의 개념이 단지 직계 가족에 제한되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환자의 직계 가족 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계에 있는 보호자가 가족중심 돌봄에 참여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환자와의 관계에 따라 보호자의 필요가 어떻게 달라지고 보호자 대상 음악 중재가 이러한 필요를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

료된다.

셋째, 가족 보호자 대상 음악 중재에서는 심리적 영역을 목표로 하는 연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금까지 가족 보호자의 우선적인 필요가 주로 심리 정서적 차원에서 확인되며, 음악 중재를 통해 가족 보호자의 심리적 필요에 용이하게 혹은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높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볼 수 있다. 국내·외 연구 비교 시 특징적인 것은 국외 연구의 경우, 심리적 영역 외에도 신체적, 관계적 영역의 목표가 다루어진 반면, 국내 연구의 경우 신체적 목표를 포함하거나 생리학적 지표를 측정하는 연구의 비중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이다. 이는 국내 의료 환경에서도 가족중심 돌봄의 개념이 지속적인 시도를 통해 적용될 필요가 있으며, 가족 보호자의 다양한 필요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및 다양화된 필요에 따른 차별적인 음악 중재의 개발 및 분석에 대한 필요 역시 시사하는 결과로 사료된다.

넷째, 국내에서 시행된 연구의 경우 가족 참여 음악 중재 자체가 적은 수의 연구에서 확인되어 이를 바탕으로 어떠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 제한이 있었던 반면, 국외에서 시행된 연구를 분석한 결과는 세부 의료 환경에 따라 가족 참여 유형이 달라지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국외 연구의 경우, 가족만을 대상으로 음악 중재를 실시한 연구들은 주로 완화의료병동에서 진행되었으며, 배우자가 참여하는 비율이 높았다. 가족 동반 참여 음악 중재 연구의 경우에는 신생아 중환자실, 암병동 등에서 실시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의 참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자의 질병 심각도에 따라 수반되는 돌봄 부담 및 삶의 질 저하 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 이를 고려하여 가족이 독립적 중재 대상이 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Choi, Bae, Kim, & Tae, 2016). 또한 소아환자의 경우 지속적인 발달 과정에 있으므로 질병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부모와의 애착 등 발달적 요소에 개입하는 것이 환자의 회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가족이 동반 참여하는 중재의 비중이 높아지는 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Han & Chae, 2016; Lim, Kim, & Shin, 2016). 추후에는 환자의 질환이나 증상 수준이 심각한 대상군을 돌보는 가족 보호자의 고유한 필요에 초점을 맞추어 돌봄 소진에 따른 신체 및 심리적 건강 관리와 대처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음악 중재 연구가 지속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가족이 동반 참여하는 음악 중재 연구에서는 보호자의 필요뿐만 아니라 환자의 치료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과 관련하여 가족의 참여 수준과 방법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음악 치료적 접근 및 간호적 음악 요법 중재를 모두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중재를 제공하는 인력의 전문성이 음악적 개입 과정 및 그에 따른 치료 효과성에 차이를 만들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를 통해 중재 제공자에 따른 음악 중재 내용 분석 및 중재 효과성 역시 분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 참여 유형에 따라 음악 중재의 유형이나 기법의 사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보호자만 참여하는 연구에서는 수동적인 음악 중재, 즉 음악감상을 사용한 경우가 많은 것에 비해, 환자와 보호자가 동반 참여하는 연구에서는 노래 만들기, 노래 부르기 등의 적극적인 음악 중재가 사용되는 비중이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 보호자의 경우, 대상자 자체가 특정한 질환이나 장애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질환이나 필요에 따라 돌봄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개입하다 보니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기보다는 수동적인 음악 경험 위주로 중재가 시행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음악 중재의 수준(즉, 수동적 음악 경험과 적극적 음악 경험)에 따라 개입할 수 있는 목표 영역과 영향을 미치는 치료적 변인에 차이가 큰 것으로 보고된 바 있는데(Lee, 2015), 추후 연구에서는 세부 의료 환경이나 목표 영역에 따라 가족 보호자의 다양화된 필요에 초점을 맞춘 적극적 음악 중재의 효과에 대한 후속 연구가 시행될 필요가 있고, 그 효과성 역시 달라지는지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본 연구는 국내외에서 실시된 의료 환경 내 환자의 가족 보호자가 참여한 음악 중재 연구를 가족 보호자의 참여 유형에 따라 음악 중재가 어떻게 시행되었는지 고찰하고 세부 의료 환경, 목표 영역, 적용된 세부 음악 중재 기법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의료 환경 내에서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는 가족 중심 돌봄의 개념이 국내 의료 환경 내 음악 중재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시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 References

- \*Anderson, J. C. (2012). *Effects of original songwriting in music therapy sessions on the hospice experience and bereavement process of patients and their famil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Florida University, Florida.
- \*Arnon, S., Shapsa, A., Forman, L., Regev, R., Bauer, S., Litmanovitz, I., & Dolfin, T. (2006). Live music is beneficial to preterm infants in the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environment. *Birth, 33*(2), 131-136.
- Bamm, E. L., & Rosenbaum, P. (2008). Family-centered theory: Origins, development, barriers, and supports to implementation in rehabilitation medicine. *Archives of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89*(8), 1618-1624.
- Bieleninik, L., Ghetti, C. M., & Gold, C. (2016). Music therapy for premature infants and their parents/caregiver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Nordic Journal of Music Therapy, 25*(sup1), 131.
- \*Blumenfeld, H., & Eisenfeld, L. (2006). Does a mother singing to her premature baby affect feeding in the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Clinical Pediatrics, 45*(1), 65-70.
- Bruns, D. A., & Klein, S. (2005). An evaluation of family-centered care in a level III NICU. *Infants & Young Children, 18*(3), 222-233.
- Burns, D. S., & Meadows, A. (2015). Music therapy research. In B. L. Wheeler (Ed.), *Music therapy handbook* (pp. 91-102). New York: Guilford Press.
- \*Cevasco, A. M. (2008). The effects of mothers' singing on full-term and preterm infants and maternal emotional responses. *Journal of Music Therapy, 45*(3), 273-306.
- \*Chaput-McGovern, J., & Silverman, M. J. (2012). Effects of music therapy with patients on a post-surgical oncology unit: A pilot study determining maintenance of immediate gains. *The Arts in Psychotherapy, 39*(5), 417-422.
- \*Choi, Y. K. (2010). The effect of music and progressive muscle relaxation on anxiety, fatigue, and quality of life in family caregivers of hospice patients. *Journal of Music Therapy, 47*(1), 53-69.
- Choi, Y. S., Bae, J. H., Kim, N. H., & Tae, Y. S. (2016). Factors influencing burden among family caregivers of elderly cancer patients(노인 암환자 가족원의 돌봄 부담감 영향요인). *Asian Oncology Nursing, 16*(1), 20-29.
- \*Chorna, O. D., Slaughter, J. C., Wang, L., Stark, A. R., & Maitre, N. L. (2014). A pacifier-activated music player with mother's voice improves oral feeding in preterm



- infants. *Pediatrics*, 133(3), 462-468.
- Coyne, I., O'Neill, C., Murphy, M., Costello, T., & O'shea, R. (2011). What does family-centered care mean to nurses and how do they think it could be enhanced in practic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67(12), 2561-2573.
- Curtis, J. R., Treece, P. D., Nielsen, E. L., Gold, J., Ciechanowski, P. S., Shannon, S. E., ... Engelberg, R. A. (2016). Randomized trial of communication facilitators to reduce family distress and intensity of end-of-life care. *American Journal of Respiratory and Critical Care Medicine*, 193(2), 154-162.
- \*Do, J.-E. (2010). *The effects of group song psychotherapy on the families of stroke patients*(그룹 노래 심리치료가 뇌졸중 환자 가족의 적응에 미치는 효과)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shin University, Seoul.
- \*Docherty, S. L., Robb, S. L., Phillips-Salimi, C., Cherven, B., Stegenga, K., Hendricks-Ferguson, V., ... Haase, J. (2013). Parental perspectives on a behavioral health music intervention for adolescent/young adult resilience during cancer treatment: Report from the children's oncology group.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52(2), 170-178.
- \*Dvorak, A. L. (2015). Music therapy support groups for cancer patients and caregivers: A mixed-methods approach. *Canadian Journal of Music Therapy*, 21(1), 69-105.
- \*Ettenberger, M., Odell-Miller, H., Cárdenas, C. R., & Parker, M. (2017). Family-centered music therapy with preterm infants and their parents in the Neonatal-Intensive-Care-Unit (NICU) in colombia: A mixed-methods study. *Nordic Journal of Music Therapy*, 26(3), 207-234.
- \*Fancourt, D., Williamon, A., Carvalho, L. A., Steptoe, A., Dow, R., & Lewis, I. (2016). Singing modulates mood, stress, cortisol, cytokine and neuropeptide activity in cancer patients and carers. *Ecancermedicalscience*, 10, 631.
- Fields, A. (2014). Diversity, culture and patient- and family-centered care in the medical setting: Implications for clinicians and supervisors. In L. F. Gooding (Ed.), *Medical music therapy* (pp. 13-15). Silver Spring, MD: American Music Therapy Association.
- Gilad, E., & Arnon, S. (2010). The role of live music and singing as a stress-reducing modality in the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environment. *Music and Medicine*, 2(1), 18-22.
- Glasscoe, C. A., & Quittner, A. L. (2008). Psychological interventions for people with cystic fibrosis and their families. *Cochrane Database of Systematic Reviews*, 2008(3), CD003148. doi:10.1002/14651858.CD003148.pub2.
- Goldbeck, L., Fidika, A., Herle, M., & Quittner, A. L. (2014). Psychological interventions for

- individuals with cystic fibrosis and their families. *Cochrane Database of Systematic Reviews*, 2014(6), CD003148. doi:10.1002/14651858.CD003148.pub3.
- \*Grasso, M. C., Button, B. M., Allison, D. J., & Sawyer, S. M. (2000). Benefits of music therapy as an adjunct to chest physiotherapy in infants and toddlers with cystic fibrosis. *Pediatric Pulmonology*, 29(5), 371-381.
- Han, S. Y., & Chae, S.-M. (2016). Perceived parental stress and nursing support for fathers of high risk infants(고위험신생아 아버지가 지각한 스트레스와 간호지지).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22(3), 190-198.
- \*Hartling, L., Newton, A. S., Liang, Y., Jou, H., Hewson, K., Klassen, T. P., & Curtis, S. (2013). Music to reduce pain and distress in the pediatric emergency department: A randomized clinical trial. *JAMA Pediatrics*, 167(9), 826-835.
- Hong, M. J., Tae, Y. S., & Noh, M. Y. (2012). Relationships between stress, ways of coping and burnout of family caregivers of cancer patients(암환자를 돌보는 가족원의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소진의 관계). *Asian Oncology Nursing*, 12(1), 92-99.
- Hwang, J.-E. (2015). *An analysis of literatures on the use of music in the ICU: From Music Therapy Perspectives*(중환자 대상 음악사용 연구 문헌 분석: 치료적 관점에서)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Im, M., & Oh, J. (2016). An integrative review on family-centered rounds for hospitalized children caring(입원아동 돌봄을 위한 가족중심 순회의 통합적 고찰).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22(2), 107-116.
- \*Jang, M.-Y. (2013). *The effects of kangaroo care and voice intervention on preterm infants and their mothers*(미숙아 어머니의 캥거루 케어와 목소리 중재 효과) (Unpublished master's thesis). Eulji University, Daejeon.
- \*Jayamala, A. K., Lakshmanagowda, P. B., Pradeep, G. C. M., & Goturu, J. (2015). Impact of music therapy on breast milk secretion in mothers of premature newborns. *Journal of Clinical and Diagnostic Research*, 9(4), 4-6.
- \*Johnston, C. C., Fillion, F., & Nuyt, A. M. (2007). Recorded maternal voice for preterm neonates undergoing heel lance. *Advances in Neonatal Care*, 7(5), 258-266.
- Jung, Y. R. (2015). Effects of song discussion on depression and rehabilitation motivation in stroke patients(노래 가사 토의가 뇌졸중 환자의 우울 및 재활동기에 미치는 효과). *Journal of Music and Human Behavior*, 12(1), 43-64.
- \*Kain, Z. N., Caldwell-Andrews, A. A., Krivutza, D. M., Weinberg, M. E., Gaal, D., Wang, S. M., & Mayes, L. C. (2004). Interactive music therapy as a treatment for preoperative

- anxiety in children: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Anesthesia & Analgesia*, 98(5), 1260-1266.
- Kim, E. J., Choi, Y. S., Kim, W.-C., & Kim, K. S. (2016). The current status of music therapy centered on 54 hospice and palliative care settings designat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n 2014(2014년 보건복지부 지정 54개 호스피스·완화의료 기관 내 음악치료 현황). *Journal of Music and Human Behavior*, 13(1), 19-40.
- \*Kim, S. A. (2006). *The effect of music listening on mood state and relaxation of hospice patients and caregiv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Florida State University, Florida.
- \*Kim, S. J., Oh, Y. J., Kim, K. J., Kwak, Y. L., & Na, S. (2010). The effect of recorded maternal voice on perioperative anxiety and emergence in children. *Anesthesia and Intensive Care*, 38(4), 1064-1069.
- \*Kitawaki, A. (2007). *The effectiveness of music therapy involving family members of terminally ill patients in hospice on quality of life of the patient and stress levels of family memb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Michigan State University, Michigan.
- \*Krout, R. E. (2003). Music therapy with imminently dying hospice patients and their families: Facilitating release near the time of death. *American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Medicine*, 20(2), 129-134.
- Kuhn, D. (2002). The effects of active and passive participation in musical activity on the immune system as measured by salivary immunoglobulin A(SIgA). *Journal of Music Therapy*, 39(1), 30-39.
- \*Lai, H. L., Chen, C. J., Peng, T. C., Chang, F. M., Hsieh, M. L., Huang, H. Y., & Chang, S. C. (2006). Randomized controlled trial of music during kangaroo care on maternal state anxiety and preterm infants' responses.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43(2), 139-146.
- \*Lai, H. L., Li, Y. M., & Lee, L. H. (2011). Effects of music intervention with nursing presence and recorded music on psycho-physiological indices of cancer patient caregivers. *Journal of Clinical Nursing*, 21(5-6), 745-756.
- Lee, J. H. (2015). *The effects of music on pain: A review of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i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emple University, Pennsylvania.
- \*Lee, S. (2006). My happy life despite pain: The qualitative research on the music autobiography experience of a hospice patient(고통 속에서도 행복한 내 삶의 여정: 종말기 환자의 음악자서전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Korean Journal of Music Therapy*, 8(2), 22-44.

- Lee, S., Oh, H., Suh, Y., & Seo, W. (2016). A tailored relocation stress intervention programme for family caregivers of patients transferred from a surgical intensive care unit to a general ward. *Journal of Clinical Nursing*, 21(5), 302-313.
- Lenburg, C. B., Klein, C., Abdur-Rahman, V., Spencer, T., & Boyer, S. (2009). The COPA Model: A comprehensive framework designed to promote quality care and competence for patient safety. *Nursing Education Perspectives*, 30(5), 312-317.
- Lim, J. H., Kim, G., & Shin, Y. (2016). Effects for kangaroo care: Systematic review & meta analysis(캥거루 케어가 미숙아와 어머니에게 미치는 효과: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3), 599-610.
- \*Lindenfelser, K. J., Hense, C., & McFerran, K. (2011). Music therapy in pediatric palliative care: Family-centered care to enhance quality of life. *American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Medicine*, 29(3), 219-226.
- \*Loewy, J., Stewart, K., Dassler, A. M., Telsey, A., & Homel, P. (2013). The effects of music therapy on vital signs, feeding, and sleep in premature infants. *Pediatrics*, 131(5), 902-918.
- Lor, M., Crooks, N., & Tluczek, A. (2016). A proposed model of person-, family-, and culture-centered nursing care. *Nursing Outlook*, 64(4), 352-366.
- \*Magill, L., & Berenson, S. (2008). The conjoint use of music therapy and reflexology with hospitalized advanced stage cancer patients and their families. *Palliative and Supportive Care*, 6(3), 289-296.
- Melnyk, B. M., Alpert-Gillis, L., Feinstein, N. F., Crean, H. F., Johnson, J., Fairbanks, E., ... Corbo-Richert, B. (2004). Creating opportunities for parent empowerment: Program effects on the mental health/coping outcomes of critically ill young children and their mothers. *Pediatrics*, 113(6), e597-e607.
- Mitchell, M., Chaboyer, W., Burmeister, E., & Foster, M. (2009). Positive effects of a nursing intervention on family-centered care in adult critical care. *American Journal of Critical Care*, 18(6), 543-552.
- O'Callaghan, C. C., Hudson, P., McDermott, F., & Zalcberg, J. R. (2011). Music among family carers of people with life-threatening cancer. *Music and Medicine*, 3(1), 47-55.
- \*O'Callaghan, C. C., O'Brien, E., Magill, L., & Ballinger, E. (2009). Resounding attachment: Cancer inpatients' song lyrics for their children in music therapy. *Supportive Care in Cancer*, 17(9), 1149-1157.
- \*Okamoto, M. (2005). *Effects of music therapy interventions on grief and spirituality of family*

- members of patients in a hospice sett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Florida State University, Florida.
- \*O'Kelly, J. (2008). Saying it in song: Music therapy as a carer support interven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Palliative Nursing, 14*(6), 281-286.
- \*Park, J.-S., Hong, K.-J., & Bang, K.-S. (2013). Effects of the 'Intervention - Mother's Song' on physical response and behavioral state of low-birth weight infants in a neonatal intensive care unit(어머니의 노래 들려주기 중재가 저출생체중아의 생리적 반응과 행동 상태에 미치는 효과).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19*(3), 198-206.
- \*Preti, C., & Welch, G. F. (2011). Music in a hospital: The impact of a live music program on pediatric patients and their caregivers. *Music and Medicine, 3*(4), 213-223.
- \*Schlez, A., Litmanovitz, I., Bauer, S., Dolfín, T., Regev, R., & Arnon, S. (2011). Combining kangaroo care and live harp music therapy in the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setting. *Israel Medical Association Journal, 13*(6), 354-358.
- Shultis, C., & Gallagher, L. (2016). Medical music therapy for adults. In B. L. Wheeler (Ed.), *Music therapy handbook* (pp. 441-453), New York: Guilford Press.
- \*Silverman, M. J. (2014). Effects of family-based educational music therapy on acute care psychiatric patients and their family members: An exploratory mixed-methods study. *Nordic Journal of Music Therapy, 23*(2), 99-122.
- \*Slivka, H. H., & Magill, L. (1986). The conjoint use of social work and music therapy in working with children of cancer patients. *Music Therapy, 6*(1), 30-40.
- \*Sumathy, S., Bhuvanewari, R., & Kala, V. (2016). Live music therapy in waiting area of intensive care units: A novel concept for betterment of close relatives of ICU pati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in Medical Sciences, 4*(3), 950-952.
- \*Teckenberg-Jansson, P., Huotilainen, M., Pölkki, T., Lipsanen, J., & Järvenpää, A. L. (2011). Rapid effects of neonatal music therapy combined with kangaroo care on prematurely-born infants. *Nordic Journal of Music Therapy, 20*(1), 22-42.
- Tung, Y. C. S. (2014). *Supporting family caregivers in end-of-life care: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of music therapy resources 1990 to 2012* (Unpublished master's thesis). Concordia University, Quebec, Canada.
- \*Vianna, M. N., Barbosa, A. P., Carvalhaes, A. S., & Cunha, A. J. (2011). Music therapy may increase breastfeeding rates among mothers of premature newborns: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Jornal De Pediatria, 87*(3), 206-212.
- \*Walworth, D. D. (2009). Effects of developmental music groups for parents and premature

or typical infants under two years on parental responsiveness and infant social development. *Journal of Music Therapy*, 46(1), 32-52.

\*Whipple, J. (2000). The effect of parent training in music and multimodal stimulation on parent-neonate interactions in the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Journal of Music Therapy*, 37(4), 250-268.

\*Whitehead-Pleaux, A. M., Zebrowski, N., Baryza, M. J., & Sheridan, R. L. (2007). Exploring the effects of music therapy on pediatric pain: Phase 1. *Journal of Music Therapy*, 44(3), 217-241.

\*Wlodarczyk, N. (2007). The effect of music therapy on the spirituality of persons in an in-patient hospice unit as measured by self-report. *Journal of Music Therapy*, 44(2), 113-122.

- 게재신청일: 2017. 03. 24.
- 수정투고일: 2017. 05. 02.
- 게재확정일: 2017. 05. 18.

## Review of Music Interventions for Family Caregivers of Patients in Medical Settings

Choi, Da In \*

This study aimed to review Korean-written and English-written studies on music interventions for family caregivers of patients in medical settings. Electronic databases were searched for studies published through 2016, using the keywords of music intervention, family caregivers, and specified settings. A total of 43 studies, five Korean-written and 38 English-written studies, were selected. The results showed that caregivers were the sole participants in five studies (family-only), and caregivers and patients co-participated in 38 studies (family-patient). While diversified types of family participation were included in the English-written studies dating back to the late 1980s, the Korean-written studies were the only ones to include patients as co-participants with their caregivers. Studies with family-only participation tended to be conducted in palliative care units and usually included the spouses of the patients. Meanwhile, studies with family-patient participation tended to be conducted in NICU or cancer units and usually included the parents of the patients. Furthermore, studies with family-only participation tended to apply passive music activities, and those with family-patient participation tended to use active music activit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present baseline data on how family-centered care can be included in music interventions in medical settings in Korea, suggesting future studies to systematically analyze music interventions for family caregivers in terms of diversified patient- and caregiver-related factors.

*Keywords : family caregiver, music intervention, medical setting, family-centered care, literature review*

---

\* Researcher, Ewha Music Rehabilitation Center, Korean Certified Music Therapist (KCMT)  
(shinsan6@naver.com)